

## 2,070.08

코스피 신년 축포...증시 사상 최고

코스피지수가 새해 개장 첫날 2,070선으로 경총 뛰어오르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3일 코스피는 지난 달 30일 폐장일보다 0.93%(19.08포인트) 오른 2070.08로 사상 최고치를 넘어서면서 2007년 10월 31일 기록한 2064.85를 3년2개월만에 깨뜨렸다.

2,060선 위에서 신묘년 새해 첫 거래를 시작한 코스피는 외국인이 3100억원이 넘는 순매수를 이어가고 기관투자자들이 합류하면서 장 막판에 2,

070선에 올라섰다.

정보기술(IT)과 자동차, 금융 등 지난해 상승세를 주도했던 업종의 대표 종목들이 지수 상승을 이끌었다.

코스피 시가총액도 1152조원을 넘어 최고치를 기록했다.

코스닥지수 역시 기관의 매수세에 힘입어 7.36포인트(1.44%) 오른 518.05로 마감하며 3거래일째 상승세를 이어갔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 알림

#### '광일춘추' 필진 바랍니다

전국 대표 지방 정론지들의 모임인 '춘추사'가 국내 정상급 필진들을 초대, 공동 계제하는 목요칼럼 '광일춘추' 필진이 새롭게 바뀝니다. 광주일보를 비롯해 부산일보·매일신문·경남신문·강원일보·경인일보·대전일보·전북일보·제주일보 등 지역 대표신문 9개사는 각각 전문가로 필진을 구성, 한국 사회의 이슈들을 날카롭게 파헤칠 것입니다. 독자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 바랍니다.



◇한수산(65) 소설가

▲광일일보 신춘문예 시 당선 ▲동아일보 신춘문예 소설 당선 ▲한국일보 신춘문예 장편소설 당선 ▲오늘의 작가상, 녹원문학상, 현대문학상 ▲세종대학교 국문과 교수

◇승효상(58) 건축가

▲서울대학교 대학원 건축학사·박사 ▲2002 미국건축가 협회 Honorary Fellowships ▲한국예술종합학교 객원교수 ▲서울건축학교 운영위원 ▲2011 광주디자인비엔날레 공동예술 감독

◇조재현(45) 배우

▲경성대학교 연극영화과 ▲중앙대학교 대학원 공연영상학과 ▲경기영상위원회 위원장 ▲제1회 DMZ 다큐멘터리영화제 집행위원장 ▲경기도 문화의전당 이사장

◇박후건(42) 경남대 신문방송정치외교학부 부교수

▲UC 버클리 경제학과 ▲UC 리버사이드 박사 ▲KDI 스쿨 GDLN 센터 소장 ▲일본 와세다대학 부교수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국제 실장

光州日報社

#### '마이너스 재정' 고착화 광주·전남 지자체

## 올해도 공무원 봉급 걱정

광주 일부 자치구가 올해도 전체 인건비를 반영하지 못한 채 예산을 편성하는 등 광주·전남지역 기초자치단체들의 '마이너스 재정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세나 자체수입으로 인건비도 주지 못하는 이들 자치체의 재정난 해소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3일 광주시와 5개 자치구에 따르면 올해 직원 인건비 390억 원 중 36억4000만원을, 남구 역시 420억원 중 140억원을 각각 확보하지 못한 채 예산을 세웠다. 광산구도 올해 공무원 임금 인상분 5.1% 중 2.5%에 해당하는 13억원을 마련하지 못했다.

특히 광주지역 5개 자치구는 지난 해부터 시세인 도시계획세가 구세로 변경되면서 645억원의 예산이 새롭게 확보됐음에도 불구하고 재정 상태가 호전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자치체는 지난해에도 예산

이 부족해 도로·공원 등 기반시설 관련 사업 축소, 불요불급한 행사 취소 등으로 간신히 인건비를 지급한 바 있다.

이 같은 구조가 계속될 경우 '돈 없는 자자체'의 행정서비스 질이 하락할 수밖에 없어 지역 간 삶의 질 격차를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동구의 경우 인건비 36억7400만원은 물론 국·시비 보조사업 구비부담 분 10억원, 청소 위탁 경비 8억원 등 모두 55억원, 남구도 인건비 140억원, 국·시비 보조사업 구비부담 분 10억원 등 150억원이 부족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구는 사회복지비 60억원 등 92억원을 확보하지 못했고, 북구도 사회복지 32억원이 여태껏 재원대책 없이 빙인으로 남아있다.

또 지난해 감사원 조사에서 전남 22개 시군 중 82% 해당하는 18곳이 지방세 및 자체수입으로 인건비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자치체는 지난해에도 예산

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곡성·고흥·장흥·함평·장성 등은 지난 2009년보다 재정난이 심화하면서 자체 수입으로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하는 자치단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이들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8.6%~10.7%로 전국 최하위 수준이다.

그나마 형편이 나은 목포시는 예산을 지난해(5899억9400만원)보다 462억원, 화순도 지난해(4074억5300만원)보다 250억원을 감액해 편성하는 등 전체 재정규모도 줄고 있다.

한 자치구 관계자는 "인건비는 무조건 지급해야하기 때문에 각 자자체에서는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이나 정책을 줄일 수밖에 없다"며 "재정이 좋은 자자체의 경우 다양화 사업으로 해당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가고 있으나 광주·전남은 계속 뒤쳐지고 있다"고 말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김지민기자 dok2000@kwangju.co.kr /양수현기자 yang@kwangju.co.kr



#### 소망의 나무야 쑥쑥 자라거라

새해 공식 업무가 시작된 3일, 송광운 청장을 비롯한 북구청 직원들이 광주시 북구 문화동 시화마을에서 시무식을 한 뒤 마일회관에 광장에 설치된 '소망의 나무'에 신년소망을 담은 리본을 달고 있다. 색동옷을 차려입고 소망의 리본을 손에 든 어린이들의 해맑은 표정이 더 나은 2011년을 기약하는 듯 하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학교설립 56주년 (1954~2010)

#### 56년 전통의 기독교 명문대학

#### 광신대학교

#### 보육교사교육원 12월 1일~1월 7일

일학문의 학 부 (062)605-1114  
대학원 (062)605-1115

#### 세해 福 많이 받으십시오

신묘년은 "하딩크 호텔"과 함께 하세요

#### 파 키지이 벳트

객실(1실) + 조식(2인) + 사우나(2인) ₩100,000

웨딩 및 환전 50인 이상 가능(단독 출 사용)

칠순 및 각종 세미나 환경(대, 중, 소 회장 환비)

행사 메뉴: 양식, 한식(전골·탕), 뷔페

#### 히딩크관광호텔

예약문의: 062)227-8500 | www.hiddinkhotel.com

#### 우암학원 창학 61주년

광주의 새로운 명문 대학교

남부대학교

(062) 970-0114

꿈을 이루는 특성화 대학

전남과학대학

(061) 360-5050

## “北핵·군사 모험주의 포기해야”

### 李대통령 신년 연설

성을 보인다면 국제사회와 함께 경제 협력을 획기적으로 발전시켜나갈 의지와 계획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 대통령은 "금년 국정운영의 두 축은 역시 안보와 경제"라며 ▲ 5%대의 고성장 ▲ 3% 수준의 물가안정 ▲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서민 중심 산출 생활 향상을 경제운영의 3대 목표로 제시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농산물 유통구조를 개편하고 서민체감 물가관리에 각별히 신경 쓰겠다"고 강조한 뒤 "대기업과 중소기업 동반성장 정책을 계속 추진, 세계적 경쟁력을 갖추도록 기업생태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령화와 양극화의 대책과 관련, 이 대통령은 '삶의 질 선진화'를 제시하면서 "우리는 복이 우리의 영토를 한 치도 넘보게 할 수 없다.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어떤 도발도 용납할 수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북한은 말뿐 아니라 행동으로 평화와 협력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면서 "대화의 문이 아직 닫히지 않았다. 북한이 진정

하며 "한정된 국가재정으로 무차별적 시혜를 베풀고 환심을 사려는 복지 포퓰리즘은 해결책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미국과의 FTA는 우리나라가 세계통상 중심국가로 전환하는 상징적, 실질적 계기가 될 것"이라며 "한중, 한일 FTA도 신중하면서도 속도를 내어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성숙한 세계국가를 위해서는 모든 분야에서 공정한 사회가 되도록 해야 한다면서 "대한민국은 국운이 융성하는 좋은 흐름을 타고 있다. 선진국의 문턱을 단숨에 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강진군에서 진실을 밝힙니다

■ 강진 청자박물관은 2007년 국보급(추정) 청자 1점을 매입(10억원)하였습니다. 이 청자는 세계적 경매기관인 소더비에서 한국인 이모씨(인사동 쿨동풀 소장가)가 구입해서 국내에 들여온 작품이었습니다. 이 작품을 사들일 때 강진군은 국내 최고 전문가 4인에게 감정평가를 의뢰하였습니다.

■ 그러면 중 2009년 10월 한나라당 성윤환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인사동 고미술 전문가들에 관한 의혹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강진군은 같은 해 10월 결백을 입증하고 진실을 규명하고자 위의 원 소장자 이모씨와 감정위원 전원을 사기죄·업무상배임죄 혐의로 검찰 고발하였습니다. (강진군이 털끝만큼이라도 떳떳하지 못하였다면 검찰수사를 의뢰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듬해 5월 강진군은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모두 혐의 없다는 공식 통보를 받았습니다.

■ 그런데 최근(2010년 12월) 감사원에서 위의 원 소장자 이모씨와 위 감정위원이었던 최모씨(前 경기도 도자박물관장) 간에 금품이 오간 정황이 있다면서 이들을 검찰에 수사 요청하였습니다.

■ 감사원은 이 과정에서 강진군 관련 공무원들의 계좌추적 조사까지 하였지만 아무런 잘못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강진군의 결백은 검찰수사와 감사원 감사로 확실히 입증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강진 공무원들이 연루되어 있다는 듯한 일부 언론의 보도는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써버린 무책임한 오보들입니다.

■ 지금 강진군의 입장은 이러합니다.

▲ 원 소장자(이모씨)와 감정위원(최모씨)과의 부적절한 관계여부는 검찰수사로 밝혀질 것이고, 밝혀져야 합니다. 검찰수사 결과, 감정위원이 원 소장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밝혀진다면 강진군은 당연히 적절한 법률적 행정적 절차를 밟을 것입니다.

▲ 일부 언론에서 이번 감사원의 검찰 수사의뢰 사실을 놓고 성윤환의원 주장처럼 마치 그 청자가 1억원도 안되는 것인양 보도하는 것도 아니었고 무책임한 일입니다. 성의원의 주장은 전문가들에 의해서 근거없는 것으로 배척되었습니다. 지금 강진 청자박물관에 소장 전시되어있는 청자(상감모란문 과형주자)는 2008년 전라남도 문화재 292호로 지정될 만큼 그 예술적 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 (강진군이 국보지정 절차를 밟아가려던 즈음에 성의원의 발언과 문을 당하였던 것입니다. 서울 인사동의 고질적인 파벌싸움에 강진군의 명예가 함께 훑쓸려갔던 것입니다.)

■ 강진군을 아껴주시는 전남도민 여러분들과 광주시민 여러분께서는 조금도 염려하실 필요가 없으십니다. 위에 말씀드린대로 강진과 강진군은 떳떳하고 깨끗하고 투명합니다. 그것이 우리 강진군의 트레이드 마크이자 저희들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도덕적 비교우위이기도 합니다.

2011년 1월

강진군수 황주홍 · 청자박물관장 안금식 올림